

일루리곤에 복음이 편만하기 까지

아직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이에 큰 지진으로 너무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등 세상은 큰 비극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역자님들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지난 겨울 이곳 알바니아의 삶을 나눕니다.

그 동안의 일들

제일 먼저 기도하던 알바니아 의사면허가 갱신되었습니다. 5년 사이에 코로나로 오랫동안 의학집담회가 열리지 못해서 평점을 채우느라 고생을 했지만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시 5년 동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는 더 특별했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와 준비를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였고 그래서 그런지 더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가정들을 심방하고 격려하는 일만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2022년 마지막 주에는 예수제자운동 유럽 수련회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라는 주제로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수련회라



서 믿음의 선후배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뜻깊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딸 사랑이가 1년 반 만에 알바니아를 찾아왔습니다. 기성이도 두 번 째 독일 실습을 가기 전에 동생을 보기 위해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서 모처럼 온 가족이 알바니아에 모였습니다. 사랑이는 한 달 여간 머물다 지금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지난 시간의 소회를 글로 전했습니다. 과거 온 가족이 알바니아에 살며 사역 하던 시간들이 우리가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영으로 하나된 가족이 되게 해 주었다 합니다. 흩어져 있음을 아쉬워 하기보다 영으로 이어져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살롬 클리닉의 진료를 통해 신자들과 교회지도자들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심한 디스크

로 30 분도 앉아있지 못하는 상태로 기도하며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에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되어 목사님이 매우 기뻐하며 치료를 종결하기도 했습니다. 살롬팀 시절 열매였던 뒤세는 이제 한 교회 사모가 되어 성도들을 섬기고 아픈 신자들을 모시고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 모습에 참 감사합니다. 이외에 쿠크스의 모통이돌 교회와 코소보 자코바의 교회를 방문하여 진료하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쿠크스 모통이돌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씩 설교를 요청 받아 해오고 있고, 자코바의 교회에서도 요청을 받아 한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진료가 복음의 접촉점 역할을 하지만 역시 복음은 말씀을 직접 전해야 합니다. 진료하던 의사가 말씀도 전한다 하니 안 오던 사람도 교회에 오기도 한다고 선교사님들이 이야기 합니다. 진료와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나안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자라나 세례를 받은 청소년과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학교 교사 팀이 구성되어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교사들에게 영어나 미술, 악기 등을 배우며 복음을 들은 것 처럼 자신들의 달란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스스로 계획을 짜서 주 중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컴퓨터, 미술, 독서, 성경 읽기 등의 프로그램에 선교사들도 참여해 피아노, 검도도 가르칠 예정입니다. 배운 대로 자신들도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에 흩어진 알바니아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한 고민을 북쪽으로 이동한 지난 2 년 동안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선교사 수가 적은 알바니아 동북부, 코소보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를 바라보며 선교의 역사가 알바니아 보다 길었던 이 지역들이 오히려 티라나와 알바니아 남부보다 변화가 더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영적 변화가 더딘 것은 무슬림들의 영향이 큼니다. 가나안 교회의 교사들을 보면서, 또 과거 살롬팀 시절 부터의 사역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역시 선교지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말과 새해에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영적인 지형을 바꾸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치고 그들을 리더로 세워 나가자는 비전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0 편 3 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Vesa e Rinisë(이슬 같은 젊은이들)이라는 이름의 운동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쿠커스에 진료소를 겸한 Akademia për Adolleshentë dhe Të Rintë(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세우고 알바니아 북부와 코소보, 북마케도니아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는 규모가 어떠하든지 같은 팀 선교사님들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 비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의 일들

위에서 말씀드린 프로젝트를 위해 쿠커스를 돌아보고 또 여러 정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4월에는 “만나며 사랑하며” 세미나와 gmp 유럽권역 수련회 그리고 예수제자운동 프랑스 단기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초에는 가나안 교회 세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례교육을 4월 말 부터 실시하려 합니다. 가나안교회에 계속해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지체들이 생기는 것도 큰 감사제목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기도제목

- 1.우리 가족의 영육강건과 맡겨진 일 들 잘 감당하도록(살롬병원, 쿠커스, 코소보 진료 및 전도, 가나안교회)
- 2.쿠커스에 알바니아 북쪽지역과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청년들을 예수제자로 훈련하기 위한 장을 마련해 주시길
- 3.기성이의 졸업과 진료(독일병원 수련)와 사랑이의 진료와 강건함위해
- 4.가나안교회 교사들의 여러 섬김들 통해 복음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편만히 전해지도록
- 5.연로하신 부모님의 영육강건 위해 특별히 혼자 계신 최조영선교사 어머니가 믿음안에서 강건하시도록